

작은 원한을 없애는 큰 덕

오나라와 싸우다가 나라를 잃고 피난을 갔었던 초나라의 소왕은 이웃 나라인 진나라의 도움으로 다시 궁궐로 돌아왔다.

그러나 오나라 군사들의 노략질과 행패로 궁궐은 쑥대밭이 되었으며, 능욕을 당한 아녀자들의 모습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으며, 그것을 본 소왕은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과 분함을 겨우겨우 참고 있었다.

우선 백성을 위로해 주고 상벌을 밝힌 다음 논공행상을 하려고 할 때 소왕은 신하들의 과거 잘못을 묻지 않고 관대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하였다.

우선 소왕이 피난 갈 무렵 배가 없어서 강을 못 건너고 있는 임금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자기 식구만을 태워 먼저 강을 버렸던 대부 남윤미를 용서해 줄 뿐 아니라 그에게 대부벼슬을 다시 주었다.

또 투회라는 신하에게도 벼슬을 주려고 하자 그의 형 투신이 와서

“저의 동생 투회는 주상께서 피난 가시다가 그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을 때 옛날의 일을 구실 삼아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고 주상을 해치려고 하던 불충한 자입니다. 그러니 저의 이우 투회만은 제외시키소서.”

이렇게 극구 반대하였으나 임금은 웃으면서 말했다.

“큰 덕은 작은 원한을 없애는 법이오. 투회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고 과인을 죽이려 한 것뿐이니 오히려 효자라고 할 수 있소. 또 그러한 효자가 어찌 충신이 되지 않겠소?”

이렇게 투회를 대부로 삼자,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과 신하들은 그러한 임금의 재치와 유머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었고, 초나라는 금방 안정을 되찾았다.